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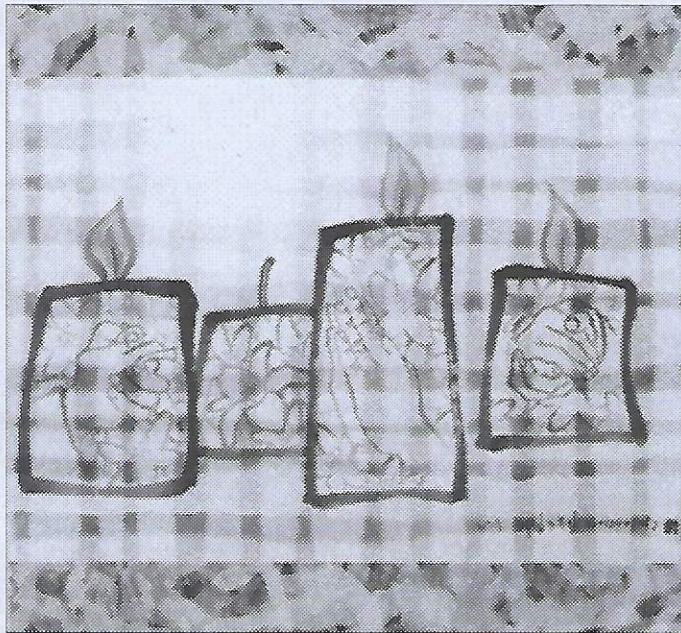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3주일

제36권 3호(다해) 2015년 12월13일

[묵상]



<대림 제 3주일>

인류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기쁜 성탄을 준비하는 절정의 대림3주일,
교회는,

왜 자선주일로 기념하려 하였을까.....?

복음은 왜 하필 이날,

속옷 두벌을 가진 이는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하였을까.....?

왜,

심판의 기준이 사랑의 나눔이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강조하셨을까.....?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허루치아 (생)김행선 올리아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후버트 최, 진은란 아네스, 최병덕 바오로 & 최효선 안젤라, 이사범 로벨토 & 이안드레아, 이종수 마틴, 현시영 요셉,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아나, 김복님 마리아 & 김차옥 요셉, 박토마스, 맥스 하드런, 연옥영훈, 김문성 & 홍봉순, 박지열, 이용식 베드로, 이영록 & 장연수 마리아 & 이금룡 베드로 (생) 이정희 소피아, 최열자 안나, 황윤재 베드로 가정, 엄영숙 마리아 & 엄세중 그레고리오, 송호창 요셉 & 송명환 베드로,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해숙 루시아, 반나영 세실리아, 강숙경 도미니카, 이귀란 아네스, 정동호 하상바오로, 안나희 회원들, 최성자 카타리나 & 최희태 베드로,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스바니아 (Zephaniah) 3, 14-18

화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이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독서 필리피서 (Philippians) 4, 4-7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루카 (Luke) 3, 10-18

영성제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2-1. 초기의 신앙 공동체(1784-1801년)

따라서 1790년대 이후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급 신자들도 바뀌었다. 양반층 신자들이 탈락한 반면, 양반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중인 이하의 인물들이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상 제사를 거부한 윤지충(尹持忠, 1759~1791년)과 권상연(權尙然, 1750~1791년)은 1791년에 순교하였다. 그들은 우리 교회사에서 첫 순교자들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순교로 양반층 신자들이 빠른 속도로 탈락해 나가면서 1791년의 박해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양반 지식층이 주도하던 종교에서 민중들의 종교 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갔다.

한편 북경의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794년 주문모(周文謨, 1752~1801년) 신부를 파견하였다. 중국인 성직자로서 조선에 파견된 그는 조선의 신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의 노력과 신자들의 전교 활동으로 조선 교회는 크게 발전하면서 신자 수가 1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때 신자들은 주로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탐지한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고자 하였다. 이때에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윤유일(尹有一, 1760~1795년), 최인길(崔仁吉, 1764~1795년), 지황(池璜, 1766~1795년)과 같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강완숙(姜完淑, 1760~1801년)을 비롯한 신자들의 보호로 주문모 신부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소규모의 탄압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탄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증언하는 신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신자들은 명도회(明道會)와 같은 신심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교리를 익히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중(丁若鍾, 1760~1801년)이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3	130	130
봉헌	264	217	257
성체	302	282	300
파견	361	175	175

주님은 우리의 기쁨

가톨릭청소년 성가집에는 ‘주는 우리의 기쁨’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라고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서 마음을 다해 찬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은 흠에서 나와 흠으로 돌아갈(창세 3,19 참조)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느님을 등지고 제멋대로의 길을 가다가 불행의 골짜기에서 해매기를 반복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못난 우리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죄와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어 구원의 손길을 건네주십니다. 스바냐야 예언자는 이런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전쟁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지만, 주님이 백성 한가운데 계시면서 당신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제1독서) 사도 바오로도 필리피 신자들에게 힘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작은 무리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 가까이 오셨기에 기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의탁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제2독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과 낙담만 남아있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의탁하면 기쁨과 생명,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세상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요, 죄인을 거듭 용서해주시는 자비의 주님,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시는 은총과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자비로 변화되어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너그러움이란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누고, 정해진 것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것입니다.(복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자비에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쫓정이가 아닌 알곡을 거두기 원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가운데 머물고자 하시는 주님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그러면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너그럽게 대합시다. 그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입을 모아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이라고 힘차게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 손희송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7일(목)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 시기 중(대림1주부터 매일)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대림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15일(화) 미사 없음
- 12월16일(수), 17일(목)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 성탄절을 앞두고 유민상 안토니오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 대 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전 교우 대청소: 오늘주일 (13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 점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 / 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카펫클리닝 : 14일(월), 15일(화)
- 문의 : 김준 방지거 소공동체 부장☎(310)625-3312

◆요셉회 송년모임

- 일시 : 20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친교장
- 새 영세자 축하 모임관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금년 마지막 모임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 정기는 비오 ☎(310)780-2789

◆성탄 /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24일(목) 밤 9시
- 성탄 대축일 낮미사 : 25일(금) 오전 11시
- 송년감사 미사 : 31일(목) 밤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겸하지 않습니다.>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2016년1월1일(금)오전 11시

◆ 2015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5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 13일 * 토서2반 : 북어국 (\$ Free)
 * 주일학교 : 김치찌개(2학년)
- 12월 20일 * 토남3반 : 콩나물 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김기정	김상규	김선제	김옥보	김원모	김정선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A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A	김정희Y	김종렬	김주량		김주량	노혜숙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노천수	노혜숙	류현옥	박광자	박씨니	박음전		반비오	방정복	유선식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박인식	박정희	반비오	방정복	변복순	송기철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장영우	정남형
	송영미	송재훈	오강림	유선식	윤희동	이귀분		정정현	정혜영	정훈모	주용순	최기남	최재은
	이근모	이남현	이상석	이영희	이은경	이은록		한장환	황지영	송마이클	한길선례		
	이인석	이재용	장영우	장은희	전동훈	전정일							
	정남형	정정현	정혜영	정훈모	조소영	주용순							
	최기남	최재은	한장환	황지영	송마이클								
	한길선례					합계:\$4,820							합계 : \$2,190
주일미사 현금 : \$2,757							2차헌금: \$1,397						
							감사헌금: \$200(박승주, 한기찬)						
							성물부 수익금 : \$479						

◆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매년 주일학교 행사로 진행되었던 성탄 예술제를 올해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본당 규모의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본당 신자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짜: 12월 19일 토요일
- 시간: 오후 5시 - 오후 10시
- 장소: 103위 성당 친교장

◆ 백삼위 배론 청년회 송년 '배론의 밤' 안내
(새 신자 및 대학생 Welcome Party)

방학을 맞이하여 돌아온 대학생, 청년 및 새 신자들을 위한 Welcome Party 입니다. 많이 참여토록 부모님들께서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2월26일(토) 특전 미사후
- 장소: 강당
- 대상: 배론 청년회원, 방학을 맞이해 본당에 온 청년들, 청년회에 관심 있는 본당신자들
- 연락처: 유보나 보나☎(310)755-9837

남가주 소식

◆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작은예수회 L.A. 분원에서 공동체를 위한 행사를 합니다.

- 일시: 12월19일(토요일)
- 미사: 11시
- 식사: 정오
- 장소: 작은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213)820-6535

◆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 공 데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 타성당 관공성사일정

- 12월14일: 성토마스성당
- 12월15일: 성바실성당
- 12월16일: 성프란치스코성당, 마테오성당
- 12월18일: 성삼성당, 마오로성당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송년모임으로 대체 12/09(수)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민수 마오로 12/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한식당(송년회) 12/18 (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04(금) 오후 7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윤화경 마오로 316-7819 12/12 (토)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2/11(금)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2/18(금) 오후 7시 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12/14(월) 11시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2(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정동호 하삼마오로 12/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749-3151 12/12(토) 6시 30분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최재은 베드로 997-9006 12/18(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2/11 (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11(금) 7시 성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12/18 (화)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회장단 회의	1시
--------	----

124위 시복특집<36>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1816~1867년)

김기량(金耆良) 펠릭스 베드로는 1816년 제주 섬 함덕리(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의 중인 집안에서 탄생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김 선달’이라고 불렀다. 그는 배를 타고 다니면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1857년 2월 18일(음력 1월 24일) 동료들과 함께 무역차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3월 26일, 펠릭스 베드로는 중국의 광둥 해역에서 영국 배에 구조되었다. 그때 동료들은 탈진하여 죽은 상태였다. 이후 펠릭스 베드로는 홍콩의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 신학생 이 바울리노를 만나게 되었다. 바울리노는 당시 그곳에서 휴양 중이었다.

바울리노는 펠릭스 베드로를 만난 다음날부터 그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펠릭스 베드로는 여기에 마음이 쏠려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였고, 그의 신앙심은 얼마 안되어 아주 깊어지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1857년 5월 31일 홍콩의 부대표인 루세이유(J. J. Rousseille)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펠릭스 베드로는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기 전인 1858년 3~4월에 페롱(S. Feron, 權) 신부와 최양업(토마스)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신부들은 그가 ‘제주의 사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그는 가족과 그의 사공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열중하였으며, 다음해 봄에는 육지로 나와 교구장인 성 베르뇌(S. Berneux, 張敬一) 주교를 만나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펠릭스 베드로는 이후로도 육지를 오가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1865년에는 두 번째로 난파하여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프티장(Petitjean) 신부를 만나고 다음 해 귀국하였다. 이후 그는 육지로 다시 나와 리델(F. Ridet) 신부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공 2명을 영세시키기도 하였다. 이 무렵 그는 다음과 같은 천주가사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어와 벗님들아 순교의 길로 나아가세.

그러나 순교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네.

나의 평생 소원은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요,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천당뿐이로다.

펠릭스 베드로는 능히 주님 대전에 오르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제주의 복음화를 위한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노력은 1866년의 병인박해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박해가 일어난 직후 그는 여느 때처럼 무역을 하러 경상도 통영으로 나갔다가 그곳의 계섬(현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되었다.

이윽고 통영 관아로 끌려간 펠릭스 베드로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켰다. 더욱이 옥에 갇혀서는 함께 있던 교우들에게 “나는 순교를 각오하였으니, 그대들도 마음을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권면하였다.

이후 통영 관장은 대구 감사에게 ‘펠릭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배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그들을 때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펠릭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혹독한 매질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이 붙어 있자, 관장은 그들 모두를 옥으로 옮겨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펠릭스 베드로의 나이는 51세였다. 이때 관장은 특별히 그의 가슴 위에 대못을 박아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웃고 갑니다]

김서방과 이서방, 박서방 세 사람이 모여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느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박서방 말했다.

"나는 먼저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느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지면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씩 좋은 방법이 못되는데요." 하고 이서방이 말했다.

"나는 땅에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지지요.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느님의 소유이고 원 바깥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자 김서방이 돌아서서 한숨을 쉬고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그만 웃기시오, 뭐! 모든 걸 다 바친다구요?" 다른 두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김서방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공중에 머무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용감한 엘리야 예언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합왕은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아내 이세벨은 이방인들의 신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합 왕도 우상숭배에 빠져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무엇이냐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 상 16,29-17,7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의 사렙타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면, 그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땀감을 줍는 과부를 만나 빵과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과부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으며 지금 땀감을 주워다가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만들어 먹고난 뒤 아마도 자신과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렙타 과부에게 어떤 기적을 행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 상 17,8-24

그 후 삼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에 내려 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자, 아합은 다짜고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망치는 놈이라며 욕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물러서지 않고,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신 바알을 받들어 섬긴 아합이라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 후 바알의 많은 예언자와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한 판 붙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열왕기 상 18,1-40

바알은 땅을 소유하고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를 지배하는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보통 한 백성의 멸망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의 윤리와 정신적인 타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하느님 이외의 신을 믿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과 바알을 나란히 섬기는 데 큰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믿음을 저버리고 미신과 우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알의 예언자들은 결국 엘리야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상의 평판, 재물, 권력을 욕심내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도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내가()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을 따랐습니다.”

(열왕기 상 18,18)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분이 바로 ()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열왕기 상 18,24)

[기도묵상]

그리스도 신자는 문을 걸어 잠근 외딴 골방에서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이며 한 몸이신 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안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파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알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자비의 특별 희년 2015년 12월 8일~2016년 11월 20일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교회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103위 한인 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1. 취지와 의미

우리 교회는 희년을 50년 또는 25년마다 거행해 왔으며, 1933년과 1983년의 특별 희년은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이번 희년에는 별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곧 교회가 모든 사목 생활에서 자비의 징표와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에 마련해 주신 자비의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은총의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교황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복음화와 사목적 회개의 길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기간

2015년 12월 8일(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어, 2016년 11월 20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마치게 됩니다.

3. 자비의 문(聖門)

희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든 교구는 주교좌 대성당 또는 특별히 중요한 성당이나 순례지에서도 성문, 곧 자비의 문을 여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015년 12월 13일(일) 대림 제3주일 교중미사 중에 ‘자비의 문을 여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4. 희년 전대사

희년에는 통상적으로 대사(大赦, indulgence)가 수여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으며, 전대사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결과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입니다. 이러한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수여할 수 있는데, 이번 자비의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2015년 12월 13일(일) ~ 2016년 11월 20일(일)

(2) 희년 성문(聖門) 순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시로 희년 성문 성당을 순례합니다.

(3) 고해성사와 미사참례

고해성사와 성찬례에 참여하여 루카복음 6장 27절~36절을 묵상합니다.

(4) 교황님 지향에 따라 기도

교황님을 위해, 그리고 교황님의 기도지향이 이뤄지도록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5) 비고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